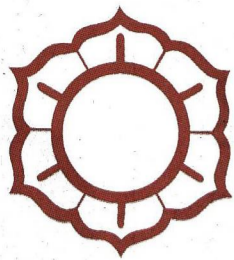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2002년  
2월 1일  
금요일  
제31호

이 달의 종조법설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거든 탐욕을 버리지 말고 남이 자  
기에게 화내는 것이 싫거든 내가 남에게 화내지 말고  
남의 무지를 용서하기 전에 자기의 기체를 먼저 닦음 지  
나라.

발행인 : 해암 편집주간 : 원승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신년하례 법회 법어

새해불공을 마치고  
피로가 채 가지지도 않  
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  
회를 위해 원근에서 참  
석해주신 스승님들께 감  
사를 드리며 교화에 애  
쓰 주신 데 대하여 치하  
를 드립니다.



오늘 퇴임하시는 송  
하 정사님, 원봉 정사  
님, 해산 정사님, 수행  
월 전수님, 주신제 전수  
님, 그 동안 참으로 수  
고가 많으셨습니다. 여  
러분 스승님들의 헌신  
과 봉사가 있었기에 오  
늘의 종단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한분 한분 스승님의 노고에  
일일이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새해불공에서는 스승님과  
모든 교도들이 더욱 용맹정진하신  
결과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진력  
으로 일선교화에 임해주신 스승님  
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참으로 뜻  
깊은 날입니다. 새해불공을 잘 마  
쳤다는 성취감과 환희심, 모든 스  
승님들이 모여 서로 축하하는 새해  
인사와 더불어 일신을 오직 종단을  
위해 재입해오신 스승님들의 퇴임  
식까지 봉행하니 가슴이 벅차고 기  
쁘기 그지 없습니다.

늘의 종단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한분 한분 스승님의 노고에  
일일이 감사드립니다.  
현직을 떠나더라도 종단에 몸담  
고 계시는 승지자임을 잊지마시고  
종단을 위하여 헌신해주시기를 바  
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  
강에 유의하여 강공회 때에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법어에  
가겠습니다.

총기31년 1월 17일  
종령 록 정 합장

## 신년하례법회 통리원장 인사말씀

건강한 모습으로 만  
나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각자  
가 희생이 되더라도 진  
정으로 종단발전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  
시면 목소리를 낮추고  
총기 30년이란 성인다  
운 종단을 이루기 위해  
서는 뜻을 모아야 하겠  
습니다. 나 한사람의 희생으로 종  
단이 발전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만 서면, 무엇이  
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 일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공을 하시  
느라 노고가 많으셨습  
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보  
다 낱씨도 포근해서 첫  
출발이 좋은 만큼 일요년은 종단의  
평온과 발전만이 있으리라 생각합  
니다. 피로도 채 가지기전에 먼길  
을 오시느라 수고도 많았지만  
은 그러나 만년의 기쁨은 더 큰 것  
같습니다. 옛것일 같지만만은  
해가 바뀌었고 지난해는 스승님들  
과 전 교도가 합심하시어 우리 종  
단으로서의 너무도 크고 보람된 일  
을 성공리에 성취하였습니다. 참으  
로 감사합니다.

스승님들, 지금까지 저희 집행부  
를 성심껏 밀어 주시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밀어주시면 비  
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서 뛰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일  
을 추진함에 있어서 별 장애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속 추진되고  
있는 본산부지 물색에도 외부에서  
본격적으로 후원하여 주시는 분도  
여러 분이 계시며 호응도가 생각보  
다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  
하오니 스승님들, 교화가 부진하다  
고 기우치지 마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용맹정진하여 총기 30주  
년 기념에 걸맞는 불사가 이루어지  
도록 합시다. 끝으로 총지중 교세  
발전과 각 사원 교화가 활성화되고  
스승님들이 건강하시기를 대일여래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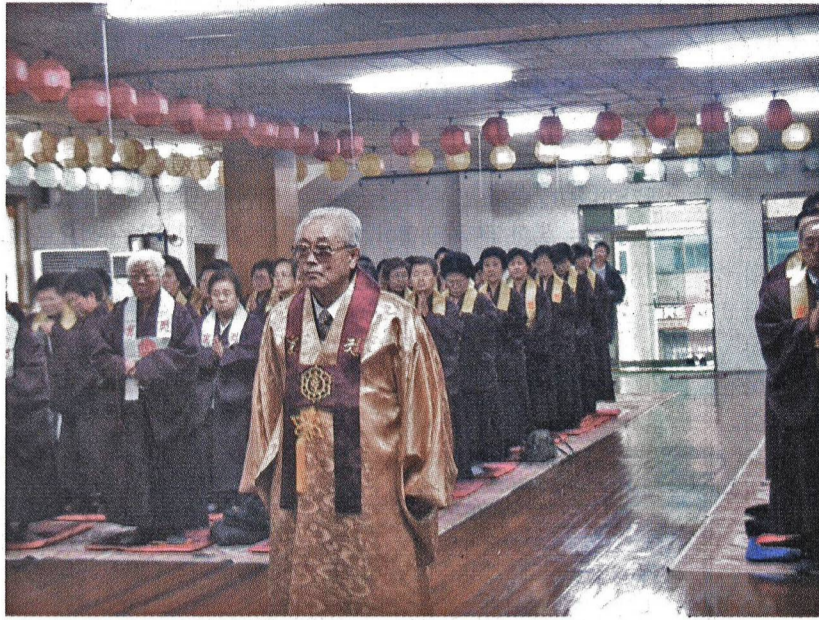
총기31년 1월 17일  
통리원장 혜 암 합장

## 한마음으로 힘찬출발, 제2도약 기약 전국스승 신년하례법회 개최, 아쉬움속 퇴임식도 같이

총기 31년 출발을 알리는 신년 하례  
법회가 지난 1월17일 총지사에서 봉행  
되었다.

전국스승님들이 모두 참석한 이날  
신년하례법회에서 목정 종령은 "새해  
불공을 통해 각자 나름대로 금년 교화  
에 대한 구상과 목표를 세웠을 것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모두가 금강같은 신  
념으로 용맹정진하여 총지중 교화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기를 기원하였으  
며, 또한 승단의 위계질서와 기강확립  
및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육화의 정신  
으로 모든 승단과 교단이 화합하는 모  
습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몸가짐을 경  
건하고 깨끗이 가꾸어 모든 이들에게  
모범을 보여 총지중의 교리와 사상을  
확고히 세워나가는데 노력하길" 부탁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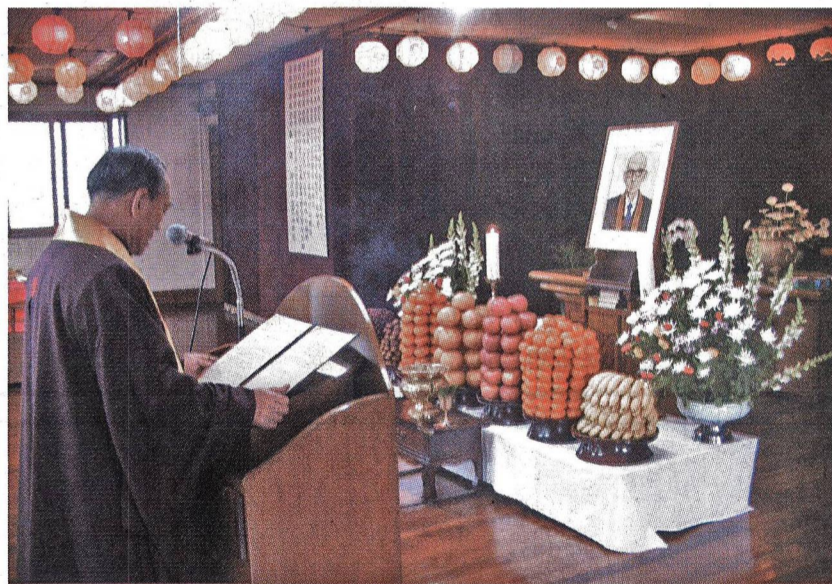
또한 해암통리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이제는 우리 각자가 희생이 되더라도  
진정으로 종단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희생으로 목숨을 낮추고 총  
기 30년이란 성인다운 종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을 모아야 하며, 나 한사람  
의 희생으로 종단이 발전할 수만 있다  
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만 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원  
장인기 초심으로 돌아가 그때 여러분  
에게 약속한 본산건립, 불단정립 및 통  
일, 인재양성, 복지사업 확충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 하나 여러분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용맹정진하여



성취하였으며 또한 총기 30년에 걸맞  
은 기념사업을 이루겠다" 하였다.  
이날 신년 하례법회는 ▲개식사 ▲  
상견하례인사 ▲훈장정공 ▲참회, 오대  
서원 ▲실지정진 ▲통리원장 인사말씀  
▲종령 법어 ▲회향서원 순으로 진행  
이 되었다.  
또한 이날 신년하례법회 후 퇴임스  
승님에 대한 퇴임식을 가졌다.  
송하(성화사 주교), 원봉(수인사 주  
교), 해산(수계사 주교), 수행월(관음  
사 주교), 주신제(성화사 전수) 다섯분  
의 퇴임식을 가졌다.  
다섯분의 퇴임스승을 대표하여 송하  
스승은 퇴임사에서 "처음 전법 아사리

의 계를 받고 교화생활을 시작한 기억  
이 었고제 같이 생생한데, 오늘 교화현  
직을 떠나는 퇴임인사를 하게 되니 감  
개무량하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  
며, 승단의 승지자로 몸 담고 있는 등  
안 큰 대과없이 교화생활을 할 수 있  
었던 것은 원로스승님들과 동료 및 후  
배 스승님들의 사랑과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원봉 기로스승은 "부처님의 말씀중  
무상 특히 세월의 무상을 느낀다며, 떠  
남은 또 다른 시작이고, 우리 전진행자  
는 언제 어디서나 처처불공 시시불공  
으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밀법수  
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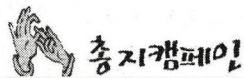
## 종조탄신일 기념법회 봉행 각 교구별 다양한 행사 이어져



지난 1월 29일은 원정 대성사 탄  
신 95주년 되는 해를 맞이하여 각교  
구별로 원정대성사가 이땅에 전통된  
교의 큰뜻을 세운 기념 대법회를 봉

행하였다.  
경인교구 스승님과 교도들은 총지사  
에서 종조탄신일 기념 법회를 봉행하  
였으며 통리원장은 기념 발원문을 "이  
땅에 종조님이 오신 뜻은 일체만물,  
일체 중생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기 위  
함이며 일체 모든 중생에게 환희와 행복  
이 충만하고 모든 소원이 두루 성취  
하기 위함이었다"며 "우리 스승과 교  
도는 종조님의 정통밀교의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제와  
사수수법을 비롯하여 교상과 사상을  
바로 세운 뜻을 깊이 새겨 교화 발전  
과 종단발전에 퇴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평소 원정대성사를 옆에서 모시고  
종조님의 뜻을 받들었던 많은 교도들  
은 살아생전 종조님이 가르치신 생활  
불교, 불교의 생활화 정신을 가슴속에  
하나하나 새기는 듯 하였다.  
특히 이날 해암 통리원장은 "종조님  
의 조사전을 시급히 세워 총지중의 근  
본을 세우고 종조님의 뜻과 사상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겠다" 하였다.



## 나의 상(我相).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설문지 조사에 의하면 경찰  
관들이 업무중에 특히 음주단속이나 교통위반 적발이  
나 그 밖의 사소한 다툼이나 경범으로 파출소에 연행  
되어온 사람들의 꼴볼견 1위에는 자신의 직위나 직책  
을 들먹이거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친구나 동창  
혹은 친인척을 들먹이면서 자신은 보통사람들과 틀린  
차원의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꼽았  
다. 굳이 경찰관의 시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도 우리  
나라 사회에는 내가,누군데 혹은 내 친구가, 내 아버  
지가 누군데 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자신을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어  
리석은 자만심이 표출하는 일종의 열등감일수도 있  
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我相)이 높다고 말하며 무  
명에 지혜가 가려진 어리석은 중생을 지칭할 때 이러  
한 표현을 쓴다. 아상이라는 것은 실어(實我)를 생각  
하는 망상(妄想)이다. [유마경] 문질품을 보면, "아상  
(我相)과 중생상(衆生相)을 없애면 마땅히 법상(法  
相)이 살아난다"라는 구절이 있다. 또 [금강경]에는,  
"만일 보살이 아상(我相)·입상(入相)·중생상(衆生  
相)·수자상(壽者相)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자신의 수행에 자신도 모르게 품  
게되는 자만심을 경계하라는 부처님의 큰 가르침이  
다. 비단 수행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  
다.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똑바로 세  
울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 내가 그래  
도 가장인데, 내가 시어머니데 하면서 가족들 앞에  
서,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상을 내세우지는 않았는  
지, 직장에서 내가 사장이데, 내가 부장인데 하면서  
아래 직원들 앞에서 내 스스로 얼굴에 금칠이나 하지  
않았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데... 경찰관이 뽑은 꼴볼견 1위처럼 가족들이 뽑은  
꼴볼견 가장 1위, 며느리가 뽑은 꼴볼견 시어머니 1  
위, 사원들이 뽑은 꼴볼견 직장상사 1위는 혹시 내가  
아닐까? 꼴볼견인 사람에게서는 주위에서 절대로 꼴볼  
견이라고 이야기해주시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이 무척  
이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보통 주위에 자  
신의 단점을 충고해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열고  
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점  
을 파악하기가 무척 힘들겠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주위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주위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 내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  
고 만일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 낮은 감은 있지만 한 해는 아상을 없애  
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죽비소리 사(寺)**  
절(寺)로 절(寺)로 모여서 절  
을 하는 절(寺) 무엇이 서원인 두손을 모아  
누구나 찾아도 반기는 그런 정성(情性)이 서원인  
두손을 모아  
너도나도 모여서 합장하는 절(寺) 한 뜻의 서원인  
두손을 모아  
누구도 찾아서 반기는 그런 환희의 서원을 이뤘  
주 노라

## 감사합니다

가사 법의 가지 봉대 불사에 동참하신 사부대중은 법신불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서원하며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월 19일 상반기 나라의 평화와 월드컵대회 원만을 위한 49일 불공에  
전 종단의 스승과 교도들은 용맹 정진으로 해탈을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혜 암

# 사설

## 창종 30년 불사준비에 만전을...

공자의 논어 위정편을 보면 "자왈(子曰) 오(吾) 십유오이지우학(十有五而志于學)하고, 삼십이립(三十而立)하고,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하고, 오십이치천명(五十而知天命)하고, 육십이이순(六十而耳順)하고, 칠십이종심소욕(七十而從心所欲)하여 불유구(不踰矩)"다 하였다. 종단의 나이가 30이 되었다. 곧 공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창종 종단의 而立(서원)이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而立(서원)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而立(서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12대 해암 총리원장 취임 일성이 종단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의지에서 본산건립 및 가사법의 현대화, 불단장엄 및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취임후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와 놀랄만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 선배스승의 뜻을 받들고 교도들의 생각을 원동력으로 삼아 일심화합의 정신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변화에 대처하려고 정진한다.

그 변화는 외형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종단 역사의 발굴과 조명, 창종주의 교상과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교도들과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교리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선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의제와 의식의 개발로 창종주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아직까지 창종종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일반 국민이 아닌 불자중에서도 창종주의 인식정도는 아주 낮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창종 30년 기념 불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창종종을 대외에 홍보하고 자랑하는 이벤트성 행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서른 즈음에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며 백년 천년 도약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溫故而知新의 정신으로...

## 밀교진언행자로 거듭나는 해로

금년은 종단이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초의원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다. 또 2002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있어 국가적으로 무척이나 바쁜 한해가 될 것이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지역, 학연, 지연, 혈연과 온갖 유언비어 금품 수수 등 분열과 대립의 아수라장으로 되풀이되어 온나라를 열병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그동안의 선거에서 수행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소수의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들이 정치권과 결탁 혹은 이용당하여 불교계 전체를 욕보이는 사례를 흔히 봐 왔다.

수행자는 수행자 다워야 가장 아름답고 대중들에게 신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처처불공 생활불교를 표방하는 창종종은 수행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늘 수행의 공간에서 진언의 묘의를 잡고 깨달음을 위해 수행정진하는 진언행자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올해는 국가적인 선거와 세계가 주목하는 큰 행사가 겹쳐있는 만큼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도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럴 때 일수록 진언행자의 진정한 수행의 모습을 지켜낸다면 종단의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구·경북스승 어려운 이웃에 금일봉 전달

대구 경북교화 연구회(교구장 우승)가 지난 1월23일 수계사에서 열렸다. 이날 교화 연구회에서는 교화 활성화 방안과 승단의 화합단결을 위해 대구 경북이 앞장서 실천하기로 하였다.

교구장 우승(제석사 주교)은 "새해에는 인화(人和)와 교화의 활성화로 다소 침체된 일선교화에 활력소

를 주는 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날 교화연구회에서는 교화 활성화에 대한 모범을 창출하고 경험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국광사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즉석에서 한마음으로 실시할하여 보살님께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 불퇴전의 수행정진으로 모든 진언행자들의 귀감

## 퇴임사

오늘, 신년하례 법회와 퇴임식에 참석하여 주신 승단의 스승님과 보살님, 그리고 종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하(松霞) 전 성화사 주교

부처님의 보살림과 가지력으로 보람차게 보낸 교화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승단의 승적자로 몸담고 있는 동안 큰 대과없이 교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로스승님들과 동료 및 후배 스승님들의 사랑과 도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밀교수행의 전범 아사리로서 교화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처음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 소임을 다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고 가슴이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절, 처음 전범아사리의 계를 받고 교화생활을 시작



원봉(圓峯) 전 수인사 주교

합니다. 그간의 세월이 짧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퇴임을 아쉬워한다면 이는 미련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퇴임은 마침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또다른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던지



혜산(慧山) 전 수계사 주교

한 기억이 엇그제 같이 생생한데, 오늘 교화현장을 떠나는 퇴임인사를 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월의 빠름과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교화생활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며 그 동안 많은 동료 스승님들을 만나 좋은 도반으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 사원에서 가족과 같은 정으로 보살림과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고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



수행월(修行月) 전 관음사

입니다. 그간의 세월이 짧지 않았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퇴임을 아쉬워한다면 이는 미련한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퇴임은 마침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또다른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든 짐을 벗어던지

고 자연무위로 돌아가 조용히 세상을 감상하며 나 자신을 더욱 되돌아보는 수행생활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기로스승으로서의 품위와 승직자로서의 덕행을 더욱 갈고 닦아 모범되는 선배스승으로 거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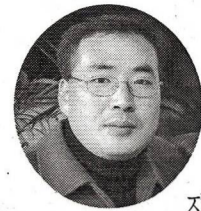
주신제(住信諦) 전 성화사

나가기를 약속드립니다. 현직을 떠나지만 승단의 일원으로서 종단발전과 중생교화라는 대사명을 잊지 않고 용맹정진코자 합니다. 스승의 사명에는 장소와 때의 구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처처불공 시시불공, 가는 곳이 불공처요, 머무르는 곳이 도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명예로운 퇴임을 마련해주신 특정 종령님과 해암 총리원장님, 그리고 승단의 모든 스승님들께 퇴임스승님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식전에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신 여러분들의 고마운 뜻을 깊이 기억하여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비로 지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하며, 두서 없는 말씀으로 간단하게나마 퇴임 인사에 거듭고자 합니다. 성도합시다.

창기 31년 1월 17일 송하·원봉·혜산·수행월·주신제 일동 합창

## 인터뷰



창지종과 인연은 불교계 불단 조성일을 하면서 창지종을 알고 있었지만, 창지종의 일은 처음입니다. 총리원장님께서 처음 연락을 주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지종 닷집 조성 작업에서 지금까지와 특별히 차별화된 것은 무엇인가 닷집이라는 그 자체는 전통양식이 많이 내포된 것이다. 현교에서는 보개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가장 전통적인 양식에 가깝게 제작을 하고 있다.

창지종의 불단은 불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작업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불상을 모시고 안모시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상단 정중앙은 본존을 모시고, 양옆 측면단은

금강 태장계 문양이 들어간다. 불단에서는 현교와 별 차이는 없다. 단지 형태만 틀리지 부처님이 없는 것은 똑같이 생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본존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본존도 목조로 조각을 하게 되는데 화염 광배가 아니라 양쪽으로 기둥이 들어간다. 제일 위쪽에 금강성좌라고 하는데 그부분은 본 종단의 교상에 맞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려고 협의 중에 있으며 글씨 자체는 청동주물을 떠 순금으로 개금하고 바탕은 붉은색으로 제작하려한다.

제작하고 있는 지금의 불단의 특이사항은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로 금강계와 태장계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크다고 본다. 언제쯤 본존 봉안을 할 수 있나. 본존이 완성되는 2월 말이면 봉안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남형 대표(태림불교공예원)

##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토정비결이나 점을 한번씩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점이나 사주 관상을 보면 지난 과거는 어느정도 맞는 것 같고, 지난 과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어느정도 맞는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것이다.

옛날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부처님앞에 가서 소매속에 참새를 한 마리 쥐고서 "부처님이 참새가 죽어서 나오겠습니까 살아서 나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부처님이 대답하기를 "너의 좁은 소견으로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마라 살아서 나온다고 하면 죽어서 날려서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데 너는 조금후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참새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는 너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라문은 사색이 되어 부처님앞에 엎드려 잘못을 빌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미래는 내가 개척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절을하고 비는 것은 "수행의 으뜸이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생, 도둑질, 욕심, 진심, 노름을 끊고 빌어야 공덕이 있다는 것이다.

옛날 사주관상에 통달한 스승님이 몇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스승의 종체가 썩어 비틀어진 모과 같이 생겼고 키도 작고 굵추우 다리는 소마비비요 사주를 풀어보니 빌어 먹을 팔자에 단명살이다. 그런데도

돈도 잘벌고 많은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50이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제자들이 이상해서 스승에게 날마다 스승의 대답이 첫째 얼굴과 몸체가 형편없이 못생긴 것은 전생에 진심많이 내고 남의 흉을 많이보고 심술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인욕하고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심하며 현실에 만족하려고 노력해왔다.

둘째 병골과 단명살에 대해서는 전생에 남에게 마음 아픈 소리 많이 하고 속을 썩인 과보요 또 산목숨 많이 죽이고 병신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치고 항상 음식을 조심해서 가려먹고 영가 방생과 영식을 천도해서 소원을 풀고 조상님께 참회 하고 유언영식, 축생영식을 불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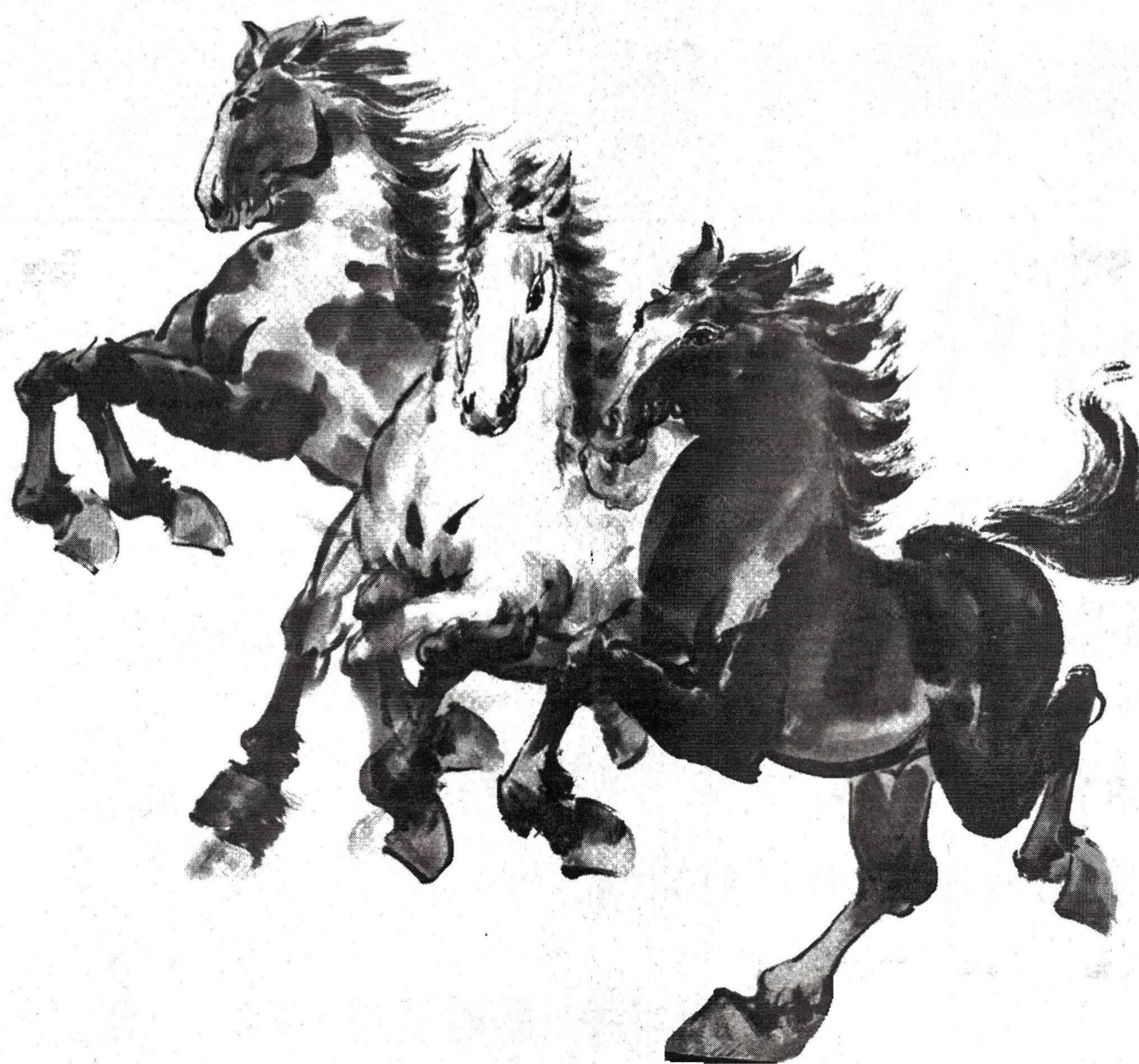
셋째 또 빈궁보에 대해서는 전생에 빚을 많이져 갚지 못하고 몸을 바꾸었으니 부처님께 회사하고 부처님이 빚빚을 사탕찾아 갚아주도록 해왔고 전생에 받기만 좋아하고 배풀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항상 근검절약하며 살아왔다. 내 관상이나 사주에 나타난 것이 전세업이라 여기며 사업을 소멸하는데 노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 숙여 끄덕이며 과연 우리 스승님이십니까 하고 감탄했다. 우리는 생김 모양이나 사주의 좋고 나쁜것에 너무 애착할것이 아니라 전세업이나 현재의 환경에 고민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기에... 회음사 주교 법정

## 내가 살아온길

사람이 사는 것은 과거에서 갖고 온業에 의해서 그대로 그 주어 진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 因果의 법칙은 분명하다. 果를 받는 바로 그 즉시 진실된 참회의 마음가짐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뿌린 씨는 무어라는 그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서 다음 果를 달게 받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른 씨를 뿌려 놓는다. 그래서 받아야 할 세월의業들을 받고 심는 그러한 되풀이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받아야 할 과할 수 없는 그 果報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 넘겨줄 때에 그 이고 온 前世의業은 소멸되고 그 동안 뿌려준 착한 씨만이 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치를 알고 나니 그 하루가 그렇게도 기쁘고 그렇게도 즐겁고 또한 기쁨에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그리고 묵묵해집니다. 그리고 도량이 조용해집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그 많은 세월이 필요했군요. 그 방법을 알고나니 훌쩍분합니다. 나는 일곱 살에 이런 것을 느꼈다. 이 세상이 어떤 착한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라면 부족한 쓰라린 가난도 또 불구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라는 모든 것들은 地.水.火.風.空.識의 인연의 변화에 따라서 그 물체는 형성되고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이 그 業緣의 작용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모인 자체가 業의 결과

인 것이다. 이 참으로 신비로운 한 찰라인 아니 지금부터 한 생각이 내세 극락도 지옥도 그 자리인 것을 이제 이 시간부터 다가서는 모든 인연은 심 그러은 작용만이 있다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모든 만남은 빛이다. 그 중에 받는 빛도 있고 주는 빛도 있다. 허나 중생은 받는 빛은 즐겁고 주는 빛은 싫고 짜증난다. 그러면 안된다는 사실도 알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실천하기 어렵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나도 그러한 짝이 있기 때문이다. 서원하자 아름답고 심비로운 생각하기를 말이다. 자신인 너 명심해라. 내일이 좋은 인연 갖기를 염승하고 또 염승을 갖자. 오늘도 이러한 원을 세워본다. 창지화



壬午年  
모든 교도 가정의  
해탈을 이루는  
희망의 한해가 되시길...

서울·경인교구장  
부산·경남교구장  
대구·경북교구장  
충청·전라교구장

총무부장 : 원송  
재무부장 : 지성  
교정부장 : 법등  
사회부장 : 대원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등에 나무가 난 물고기 <목어>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구들 중에 목어가 있다. 산사의 아침 저녁으로 예불 때마다 청아한 소리를 내어 수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목어는 나무를 깎아 잉어모양을 만들고 속을 파내어 두 개의 나무막대를 이용하여 소리를 낸다. 이는 물속의 중생을 깨우치고 게으른 수행자를 채찍질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고기를 보면 밤에도 눈을 뜨고 있으므로 물고기와 같이 항상 깨어 있으면서 부지런히 정진 수행하라는 뜻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무 물고기로 소리를 낸다.

목어는 대부분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지만 머리를 용의 형상으로 하고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되기도 하는데 이는 잉어가 용으로 변한다고 하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을 표현한 것이며 어변성룡은 곧 해탈(解脫)을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물고기라는 중생이 용이라는 깨달은 중생 즉 보살이 됨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목어를 울리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보살이 되라는 깊은 뜻이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설화그림으로 물고기 등에 나무가 나있는 그림을 어느 사찰 벽화에서 본 기억이 남아 있으리라.

『옛날 중국 동정호(양자강) 가까이에 공부가 하늘에 까지 닿은 도승(道僧)한 분이 있었다.

중국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스님의 높은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스님 밑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제자가 공부를 하려는 뜻을 세워 스님의 제자가 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게으름이 나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장남만 일삼았다.

스님은 여러번 타일렀으나 게으른 제자는 스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방종한 길로만 흘러갔다. 할 수 없이 스님은 그 제자에게 벌을 주기로 결심하고 신통력을 부려 물고기로 만들어 동정호 속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반성을 하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 주겠으니 참회하고 근신하라” 그러나 물고기가 된 게으른 제자는 반성은커녕 물속을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며 처음 보는 물 속을 구경하면서 더 재미있게 놀기만 하였다.

이를 안 스님은 물고기에게 더 무거운 벌을 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물고기의 등에 커다란 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등에 나무가 생기자 물고기는 헤엄을 칠 수도 없고 먹이를 잡아 먹을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풍량이 칠 때마다 등에 있는 나무가 흔들려 등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야 이 게으른 수행자 물고기는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달픈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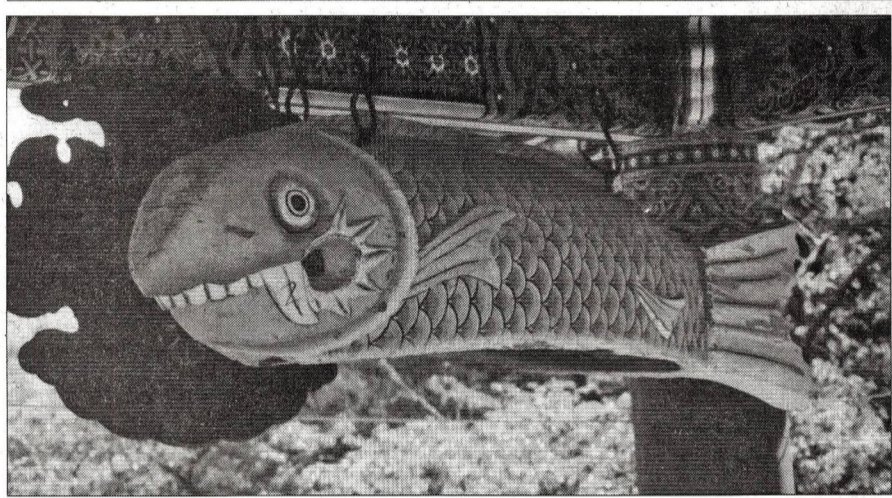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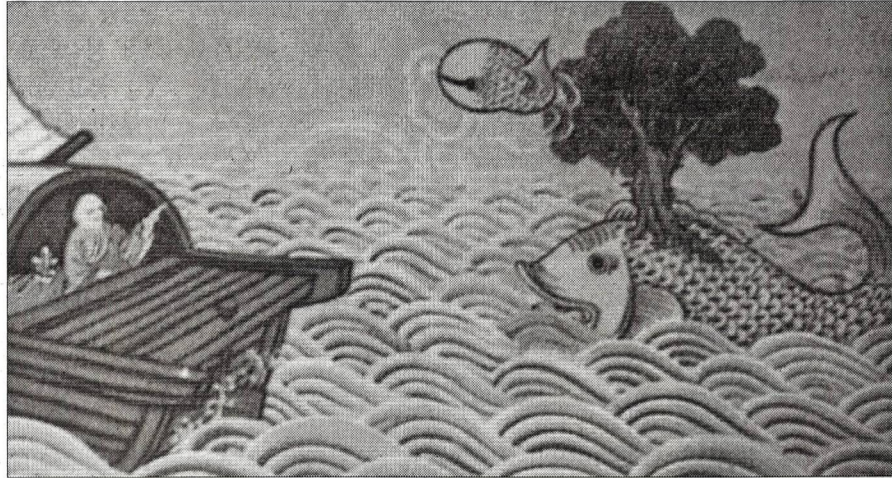
몇 년이 지난 후 마침 스승인 스님이 배를 타고 동정호를 지나게 되었다. 물고기는 이를 알고 스님에게 다가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고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였다.

스님은 제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 것

을 보고 물에서 사는 미물과 함께 외로운 영혼들을 천도(薦度)하는 법화인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어 그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물고기 등에 있던 나무로 목어(木魚)를 만들어서 절에 걸어두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을 모을 때 치면서 많은 수행자들이 늘 경계심을 갖도록 했다”고 한다.

목어는 후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둥글고 작게 만들어져 항상 몸에 지닐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목탁이라고 한다. 목탁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기 전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주는 도구에서 불교 전래이후 대추나무, 박달나무, 은행나무, 괴목(槐木)으로 만들어 지고 있으며 모양도 예쁘고 소리도 청아한 귀중한 법구중의 하나가 되었다.



수행자로 하여금 물고기처럼 눈을 항상 떠 도를 닦으라는 뜻이 함축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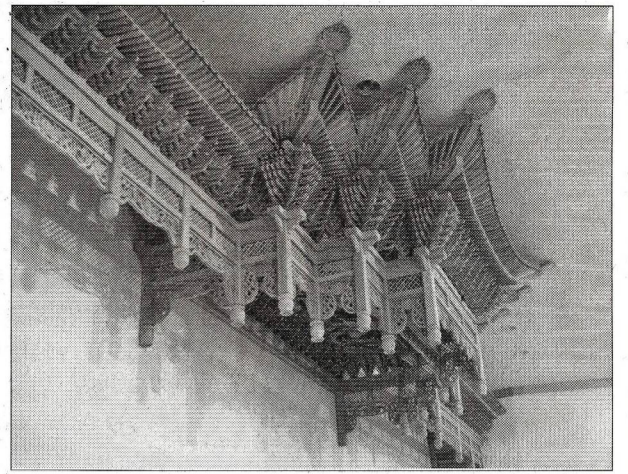
사원은 지금...

총지사 불단공사 한창

총지사 불단공사가 한창이다. 태립불교공예원(이남형 대표)이 지난 1월 2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금 단집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불단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단집은 부처님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불상의 머리 위에 설치되는 것으로 '천개 또는 보개'라고도 한다. 대승경전(大乘經典)에 보면 "부처님의 백호(白毫)가 칠보(七寶)의 대개(大蓋)로 변하여 하늘을 가렸다."는 대목이 있다.

인도는 더운 나라이므로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산개(傘蓋)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후에 불상조각에 받아들여져 단집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에는 천으로 만들었으나 후세에는 금속이나 목재로 조각하여 만든 것이 많아졌으며, 모양도 옛날에는 연화(蓮華)를 본뒀으나 나중에는 4각형·6각형·8각형·원형 등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 이것을 천장에 달아놓기도 하고 또는 위가 구부러진 긴 장대에 달기도 한다. 음마니반베속 육지인연을 본존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한 단집이 원만하게 장엄되기를 서원해본다.

불교 에세이

진정한 참회를 위하여

언제까지나 반성과 참회만을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한 참회는 진정한 참회가 될 수 없습니다. 참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향한 발심과 적극적인 선업(善業)이 필요합니다. 선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참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참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을 하는 것으로 참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구현하는 것이 참회가 지향하는 바라면, 참회의 완성은 최고선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실상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여, 자신과 만민의 참 모습을 밝게 깨우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번민과 방황은 그 때에서야 비로소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회가 부정적인 행위의 전향이라면, 회향은 모든 긍정적인 행위의 전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업으로 인한 공덕을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못 중생들에게 돌리는 행위 역시 보다 차원 높은 가치로 힘차게 나아가는 불자의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은 선업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않고 타인의 기쁨을 위해 봉사하려는 회향의 마음은, 남의 괴로움을 자신이 대신 받고자 하는 보살의 대수고(代受苦)의 자세와도 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버릇처럼 항상 지나고 나서야 후회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때그때 점검하고 바로잡으면 훨씬 발전적이고, 불필요한 후회와 미련을 없앨 텐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 한 때라도 품과 마음을 바로하고 부처님을 향해 예배한 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다. 오늘 하루동안 어리석음에 빠져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가, 나의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는가, 잘못된 버릇에 길들여지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반성해 보고, 부처님께 발원해야 합니다.

제가 순간 순간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데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미련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순간 순간마다 교만하고 진실치 못한 데에 몰들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온 나쁜 짓과

교만하고 진실치 못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순간 순간마다 질투에 몰들지 않게 하소서.

이전부터 지어 온 나쁜 짓과 질투한 죄를 모두 참회하오니 단번에 소멸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육조단경)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깨끗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거울을 보며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은 빨리 제거해 내면서도 마음에 쌓여가는 죄업을 씻는 일에는 게으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세수하듯이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참회를 일상화하고 선업을 쌓아가며, 남을 위해 회향하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양동호 법사)

참회와 회향은

거울을 보며 매일매일

몸을 단정하는 것

김경현 성형외과

Dr. Kim's esthetic plastic surgery

약 력 : -가톨릭대학 의학과 졸업

수술전문 : 주름주사 및 레이저 박피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스텝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과장

TEL 02-332-4456

FAX 02-332-4457

www.pskkh.pe.kr

진료시간 : -평 일 10:00~18:30

-토요일 10:00~17:00

-휴일 예약진료



지상설법

밀교는 대발심으로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인덕심 전수님 (총지사)

새해불공은 일년 불공중에서 가장 중요한 큰 불공입니다. 오늘 읽은 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일년한해를 설계하는 불공입니다. 오늘이 월초 새해불공 4일째로 가장 합들 것입니다.

근본은 스승님에게 배웠지만 밀교는 스스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스승은 등대이며 길을 잡아주는 이정표입니다. 스승은 사거리에 서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가지 말고 파란불이면 건너고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동쪽을 알려주고 서쪽을 가고자 하는 자는 서쪽을 알려주는 스승의 위치입니다.

결과 스승이 여러분이 가고자하는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불공을 통해 하나하나 깨닫고 얻어서 목적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제 불멸심스승님의 법문 "해라 해라 하면 안하고 툭 던져주면 알아서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스스로에 의지하고 깨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이 깨쳐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체법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내중의 결과인 당체법문을 미신으로 치부하는데 그것은 밀교에 대한 무지

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했다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진리의 법문을 미신, 혹은 다른 무엇으로 치부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모두 믿지 않고 거짓된 것 그릇된 것으로 보는 경향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팔만사천법문을 경험해야 진리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중을 통한 당체법문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커다란 밀교 법문입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불공을 하는 것과 타성에 젖어 마지못해 하는 불공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듯이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내중을 통한 당체법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밀교의 커다란 진리이며 부처님이 주신 여의보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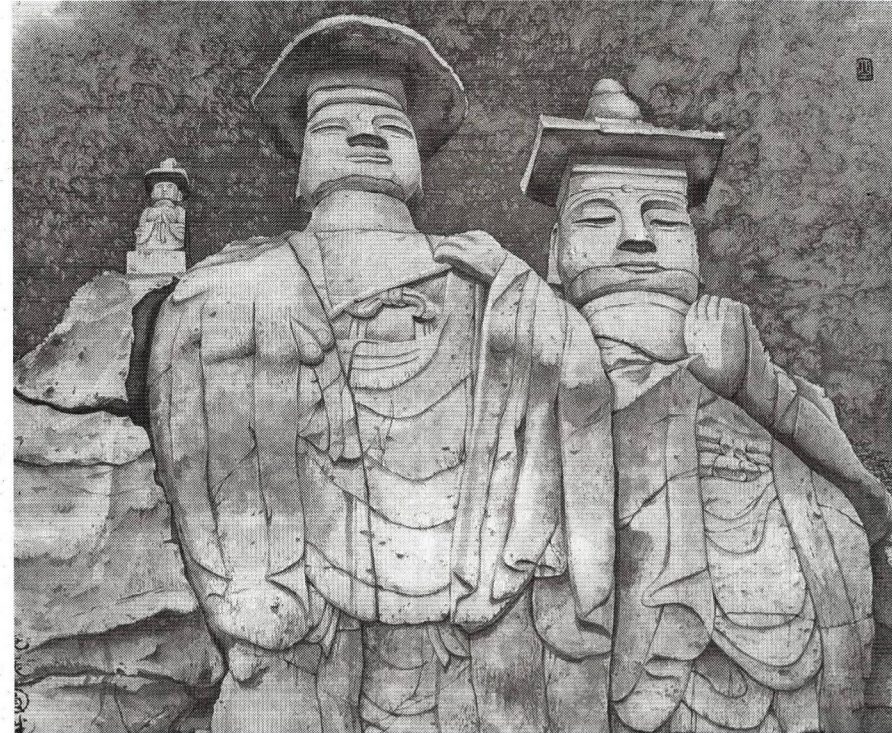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말씀이며 당체법문을 끝없이 끝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항시 우리 중생에게 법문을 항시내린다 오직 중생심과 망심으로 그 법문을 못볼뿐

그러나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영의 보주를 놓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당체법문은 자성이 맑아야 다가오게 됩니다.

자성이 평정하면 부처님의 진리를 진리로써 받아들이는데 우리 중생심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에 맞으면 받고 맞지 않으면 버리고 하는 분별심이 부처님의 진리인 당체법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 그대로가 곧 부처님의 세계이며 우주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주위에 일어나는 무수한 부처님의 진리를 흘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처음 1년 새해불공을 하라는 스승

그러하기에 법신 부처님의 법문은 우리 일상생활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항시 가르침을 줍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공덕에서 비롯된 것이지 부처님의 진리법문이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부처님의 당체법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미신이라 뭐다 이야기하는 것은 밀교행자의 근본이 없는 것입

님의 말씀에 천지도 모르고 그냥 불공을 했습니다. 오로지 소원성취와 요행수만 바라는 불공을 했습니다. "부처님 올해는 복이 그냥 광광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희망으로 불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빌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은 다르게 법문을 내려 주시더라고요. 옛날 한해는 광장하 안좋은 한해였습니다. 가정과 가족에게 불행이 겹치는 한해였습니다. 큰아기를 업고 새해불공을 다니는데 며칠전부터 목발 집은 사람을 연속 3-4일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목발을 잡고 차를 타는 사람을 보는 것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처님이 "봐라 재발 보고 느껴라"고 내려주신 법문이었던 것입니다. 중순쯤 정사님이 목발을 짚은 큰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광치는 새해불공에서 보여준 법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부터 새해불공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모두 흘리지 않고 메모하는 버릇을 20여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법문을 흘리지 않고 달마다 대입을 해보면 모두 맞아 떨어집니다. 부처님이 당체법문으로 다가오는 것입

니다. 새해불공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문을 기록하고 1년이 지나서 보면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1주일불공을 일요일은 회향일이니 6일동안 1년을 계산하면 약 2개월씩 계산하면 맞아떨어집니다.

월요일에 일어나는 법문은 1월과 2월로 보고 화요일은 3월, 4월로 계산하여 대입하면 1년이 됩니다. 밀교의 진언행자는 이러한 밀교가 추구하는 오묘한 근본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현교에서 사용하는 법을 우리 밀교에 대입하여 무슨 미신이다, 뭐다 하는데 이는 밀교의 근본과 핵심정수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밀교의 근본을 세우고 핵심 정수를 알아야 밀교에서 추구하는 즉신성불이라는 커다란 서원을 이룰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언의 힘이 큼니다.

정확히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닦으면 부처님은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당체법문입니다.

우리의 심성이 탁하고 마진이 있어 부처님의 법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누워 침 뱉는 모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해불공은 1년의 전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불공입니다. 여러분도 전심전력으로 불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보내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공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놓고 불공에 전력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시사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항상 우리 주위에서 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생활속의 밀교

색(色)은 또다른 밀교방편의 하나이다

얼마전 TV에서 색채 심리치료법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다. 내용인즉 사람에게 빨간 광선을 쬐이면 신체활동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줄곧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봤던 기억이난다.

색(色)을 인간생활에 이용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중국, 인도, 티벳 등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정신치료를 색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수 천년 전 이집트에서부터 비롯되었

선을 쬐었을 때 더 많은 알을 낳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불교에서 색의 활용은 어떤 경우일까. 의례와 의식, 도량의 장엄, 가사 등 모든 면에서 색이 활용되었다.

특히 밀교에서 색은 교의와 신앙의 상징과 표현으로써 의계 작법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육대(六)를 각 성덕(性德)에 따라 6가지 색으로 나타내었고, 만다라에서는 중심 오불(五佛)의 황·백·적·흑·청색을 위시하여 제불보살에 까지 색이 사용되었다.

종조님은 색을 교상과 사상에 적극적으로 활용

종조님께서는 색을 활용한 예는 승단의 법의(法衣)라 할 수 있다. 밀교의 사중수법(四種修法)을

종조님께서 색을 활용한 예는 승단의 법의(法衣)라 할 수 있다. 밀교의 사중수법(四種修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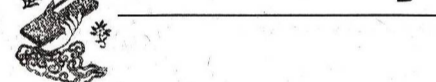
근거하여 각각의 색깔에 따라 4색의 법의를 제정하셨던 것으로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에 따른 적극적인 색(色)의 활용이었다. 이와 같은 색의 표상(表相)은 밀교 사상(事相)의 전형(典型)이요 큰 특징이라 하겠다.

TV를 보며 필자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종조님께서 색을 활용하면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의 표현 뿐만 아니라 혹은 정신심리적인 측면을 조금이라도 감안하지 않았을까?' 글씨,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하지 않을까. '색은 이미 우리에게 또다른 밀교방편의 하나라는 점'이다. 조용히 색의 의미를 되새기며 금강염송에 들어가 본다.

최근 실험에서 닭에게 노란색의 광

부처님이 당체법문으로 다가오는 것입

마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불교 法具의 하나인 염주는 불·보살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목 또는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며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염주의 횡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므로 數珠(수주)라고도 한다. 독경·좌선·염불·주례 등 불교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모두一心으로 번뇌를 지워나가 菩提(보리) 곧 깨달음을 증득하는데 있으므로, 손에 쥐기만 해도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염주는 佛子들이 창안해낸 우리 인류의 훌륭한 발명품 중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원래는 보리수 열매를 골라 108개를 꿰어 만들었으나, 오늘날은 수정이나 대추나무 혹은 딱딱한 열매 등을 이용하기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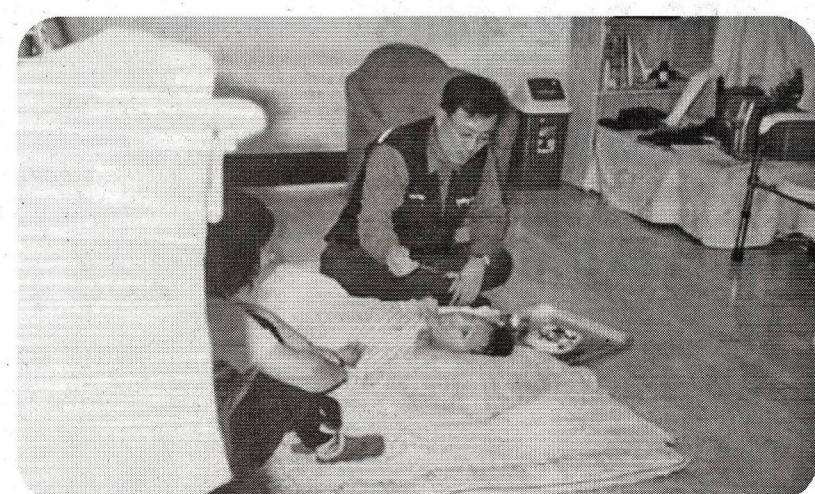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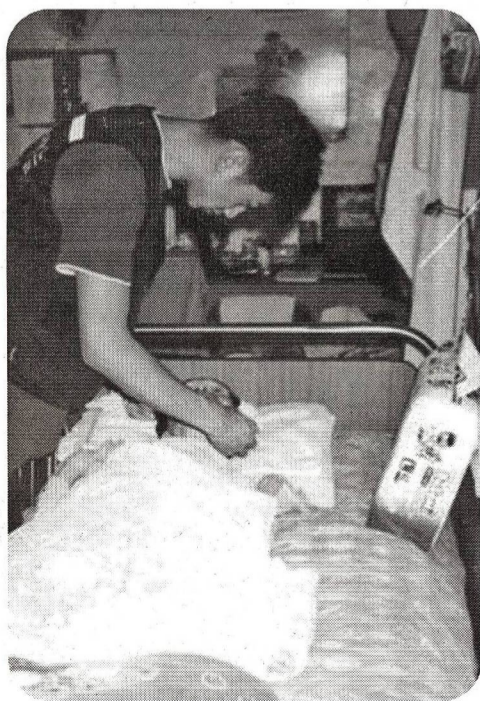
念珠(염주)

다.

108개를 꿰는 이유는 108번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씩 손가락으로 넘기며 번뇌 하나씩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며, 그 절반인 54개로 된 것은 보살수행의 계위인 4善根·10信·10住·10行·10廻向·10地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그 절반인 27개로 된 것은 小乘의 27賢聖를 표시한 것이라 하며, 이밖에 100염주千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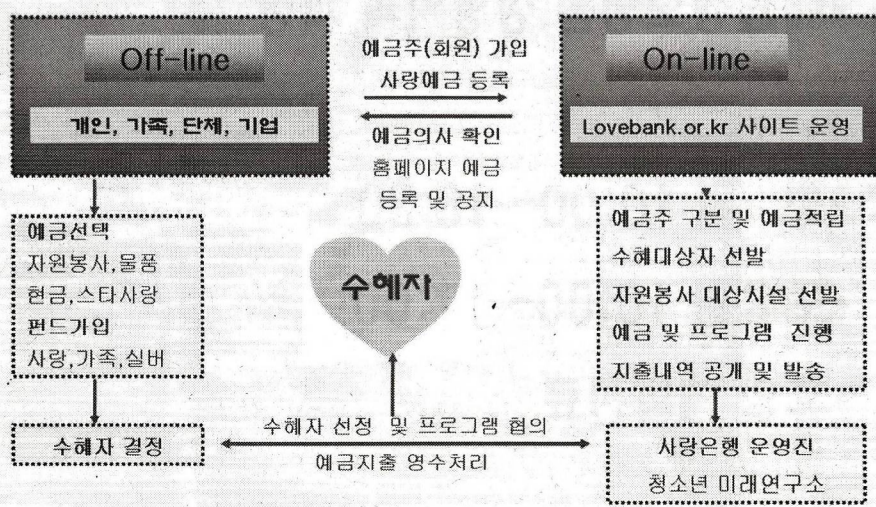
염주에 관한 경전적 근거는 '木子經'에 보이며, '木子[염주나무] 108개를 꿰어 항상 가지고 다니며 行住坐臥에서 염불에 사용하면, 108結業을 끊을 수 있고 열반에 들게 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꿈 희망 사랑 Lovebank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종교포럼

대일경 주심품 삼구법문 연구



이정수

'대일경' 중에서도 밀교의 이론적 입장을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주심품을 중심으로 그곳에 나타난 삼구법문의 사상을 규명한 논문이 통과되었다. 불교학과 이정수씨는 (대일경 주심품 삼구법문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서 "보리심을 인(因)으로 삼고 대비를 근간으로 삼고, 방편을 무상의 진리로 삼는다(菩提心爲因 大悲爲根 方便爲究竟)"는 삼구법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수행을 역사적으로 구조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것이 밀교수행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조명했다. 또 의례의 출현에 있어 그 선구적 역할을 해온 유가수행이 어떻게 전개되고 전승되어 왔는지도 고찰했다. 총지중보는 31호와 32호에 걸쳐 이정수씨의 논문중 서언과 결어를 실고자한다. (편집자 주)

緒言

佛敎思想史의 側面에서 密敎가 차지하고 있는 位相과 그 意義는 多様한 각도에서 많은 人들에 의하여 考察되고 研究되어 왔다. 佛敎의 敎學體系에서 大乘의 最후에 해당하는 密敎의 敎學 特性上 여러 분야의 佛敎思想과 다양한 敎學體

系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곧 時期的으로 密敎가 大乘佛敎 後期에 成立되었기 때문에 思想的으로는 般若, 華嚴, 中觀, 唯識, 如來藏 등의 기존 大乘佛敎思想을 承襲하여 收容 내지 發展되어 왔다.

이러한 密敎敎相의 여러 經軌 가운데에서도 印度에 있어서 除災招福의이고 現世利益의 側面이 크게 부각되었던 初期形態의 密敎經典群에서 벗어나 大乘本然의 衆生救濟와 成佛에 관한 內容을 承襲하여 成立된 것이 '大日經'이다. 따라서 '大日經'은 그 內容面에서 大乘精神의 精華로서 衆生救濟라는 大命題와 그것을 自己實現시키려는 修行과 깨달음의 自覺이라는 立場에서 '金剛眞經'과 함께 印度中期密敎를 代表하는 經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 '大日經'은 密敎史에 있어서 大乘思想의 儀軌化 등에 큰 관심을 기울여 成立되었다. 이것은 大日如來의 本質이 現象으로 드러나거나 理解되는 性質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不得不 儀軌라는 形式을 통하여 象徴적으로 登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점 또한 密敎經典 특히 '大日經'이 지니고 있는 큰 意義를 할 수 있다. 이와 同時에 '大日經'은 大乘思想의 총아라 할 수 있는 密敎를 敎理的인 면에서 綜合적으로 構築하였기 때문에 密敎敎學과 그 修行上의 方法을 發展시키는데 중요한 役割을 했다.

따라서 본 論考에서는 '大日經' 가운데서 密敎의 理論的인 立場을 가장 含蓄적으로 要約하고 있는 [住心品을 中心으로 하여 거기에 나타나 있는 삼구법문을 살펴보는 데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大日經'의 成立으로부터 그 譯語와 註釋書에 대하여 論究하고자 한다. 그런데 많은 大乘經典들이 그러하듯 '大日經'도 現在 산스 크리트 原本이 전해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우선 '大日經'에 대한 註釋을 中心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나 있는 內

容을 구분하지만 먼저 經典으로는 A.D. 8세기 초 中國에 譯된 것이 現存 '大日經'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또한 註釋書로서는 中國에서 善無畏三藏과 그의 弟子一行 등에 의하여 '大日經'에 대한 註釋書인 '大日經疏'가 등장하였다. 이것은 '大日經'이 漢譯 初期부터 研究가 시

면 中國과 티베트의 두 地域에서 모두 '大日經'이 譯語되고 거의 같은 時期에 이에 관한 研究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中國과 티베트에서 同時에 '大日經'의 敎學的 重要性를 認識하고 있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곧 '大日經'의 位相이 그만큼 重要性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가늠케 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論文은 이러한 '大日經' 가운데에서도 內容적으로 가장 中心이 되고 있는 [住心品을 中心으로 하여 거기에 나타나 있는 소위 삼구법문에 대하여 그 內容을 分析하여 理解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삼구법문에 대한 修行을 歷史적으로 또한 構造的으로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密敎修行에 있어서 어떤 役割을 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그 目的을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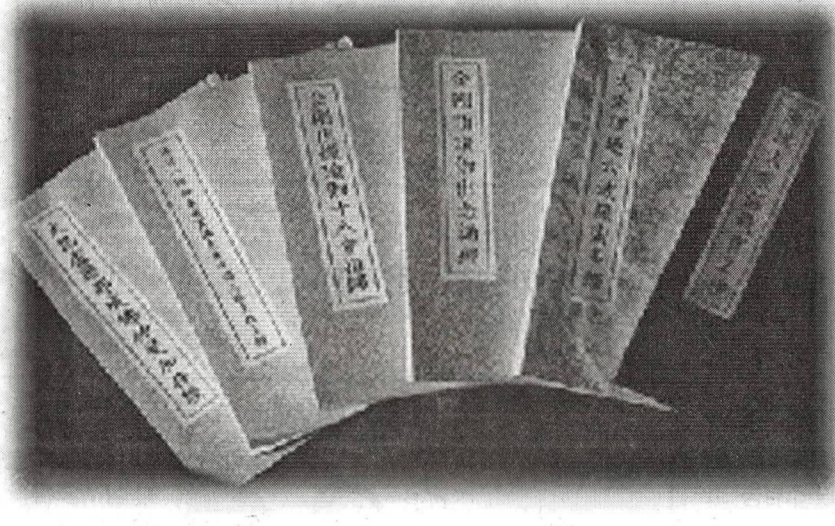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우선 삼구법문이 收錄되어 있는 '大日經' [住心品에 대하여 그 位相과 構造 및 內容에 관하여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 삼구法門에서 차지하는 菩提心의 位置는 삼구 가운데 하나로서의 菩提心과 삼구 전체를 아우르는 大菩提心으로서의 位相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菩提心에 대하여 大菩提心으로서의 意義 및 位相을 살펴보고, 이것이 畢竟에는 一切智智로서 方便을 究竟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密敎의 特性을 드러내는데 主眼點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大菩提心으로서의 菩提心에 관해 몇 가지 說을 中心으로 하여 그러한 內容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大菩提心이 160心の 超越과 四支念誦, 그리고 나아가서 五相成身觀의 意味로 展開로 되는 것에 대하여 具體적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大菩提心은 一切智智로서의 自心의 完成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本來의 特徵과 意味에 관해서도 論究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삼구法門이 實踐적으로 展開되어 나아가는 過程에서 密敎한 관련이 있는 瑜伽修行의 관계와 瑜伽修行의 觀點을 통하여 그 內容과 意味를 把握하여 삼구法門이 갖는 修行의 側面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密敎의 意義가 實踐을 통한 大日如來의 法身을 體得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修行過程과 그 形式, 곧 儀軌의 出現에 있어 그 先驅의 役割을 해 온 瑜伽修行이 어떻게 展開되고 傳承되어 왔는가를 하는 점에 대하여도 言及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研究를 위하여 漢譯大藏經과 티베트장경,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산스 크리트본을 參照하여 作業을 進行할 것이다. 그러나 現在까지 이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研究成果는 극히 限定的인 立場에 있다. 따라서 기존 研究 成果 가운데서 比較的 많은 研究業績을 蓄積해 온 日本의 論文과 著書 등의 研究成果를 參考하여 본 論文의 作業을 進行시키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



보리심을 인으로 삼고 대비를 근간으로 삼고 방편을 무상의 진리로 삼는다

容을 中心으로 삼구法門의 內容과 配列, 그리고 體系와 歷史的인 展開와 傳承에 대하여 가장 방대한 典籍으로 남아 있는 漢譯을 爲主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必要에 따라 기타 단편적인 本本은 補助資料로 참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研究의 중심적인 텍스트는 漢譯이 될 수밖에 없다. 이 漢譯 가운데에서도 經典과 註釋에 해당하는 것

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 후 약 1세기가 지난 후에 '大日經'은 티베트에서도 譯語되었다. 티베트에서도 마찬가지로 經典과 그에 대한 註釋書가 등장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붓다구히야(Buddhaguhya, 覺密, A. D. 8-9C)를 들 수 있다. 그는 '大日經'에 대한 '廣釋'과 '要義釋'의 두 가지 註釋書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歷史적으로 살펴

[住心品에 나타나 있는 삼구法門에 대한 典籍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漢譯 '大日經'에서는 "菩提心爲因 大悲爲根 方便爲究竟"으로 삼구法門 配列의 問題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기 때문에 漢譯의 構造를 中心으로 먼저 살피는 것이 順序이다. 이와 함께 삼구法門이 配列되어 廣大解釋되어 나타난 五轉과 九句에 대한 內容까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 다이제스트

화 잘 내는 사람 뇌졸중 위험 높아

성격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요인이 없어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질병통제센터(CDC)의 제나스 윌리엄스 박사는 미국 심장학회(AHA)의 학술지 '뇌졸중' 1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만4천명의 성인(48-67세)을 대상으로 성격조사를 실시한 뒤 8년간 뇌졸중 발생여부를 지켜 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박사는 분노와 뇌졸중의 이같은 연관성은 흡연, 약성 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LDL), 고혈압, 당뇨병 등 뇌졸중 요인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욕/연합)

노인 암 발생 증가 원인 첫 규명

노인이 되면 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메커니즘이 국내의 료진에 의해 세계 처음으로 규명됐다. 서울대의대 생화학교실 박상철, 서유신 교수팀은 실험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젊은 쥐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는 '세포사(細胞死, apoptosis)가 노화된 쥐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을 밝혀냈다고 4일 말했다.

세포사란 손상된 DNA를 갖고 있는 세포가 스스로 죽음으로써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세포의 자기방어기전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이같은 연구결과는 손상된 DNA를 갖고 있는 세포가 젊은 쥐에서는 세포사라는 과정을 통해 없어지지만 노화된 쥐에서는 계속 살아남음으로써 암세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미세먼지는 '조용한 살인자'

연세대 의대 신동천 교수(환경공해연구소장)는 30일 블루스카 이 2002 추위로 열린 '시민건강과 대기오염' 심포지엄에서 미세먼지(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에 오랜 기간 만성적으로 노출돼 추가로 사망한 사람이 6대 도시에서 연간 2만1895명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1만645명)의 두 배나 되는 숫자이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만성 사망자의 46%가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한 서울에 몰려있었다.

흔히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는 버스, 트럭 등 경유차에서 많이 나오며, 폐에 깊숙이 박힌 채 몸 바깥으로 잘 빠져나오지 않아, 호흡기,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동아)

총지 동의 보감

변비를 치료해야 하는 이유

고풍스러운 절에 가보면 한결 외진 곳에 해우소(解憂所)라고 쓰여있는 건물을 발견한 적이 있을 지 모르겠다.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라는 이곳은 바로 화장실을 가리킨다. 대소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근심스러웠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배변은 먹는 것 이상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체는 간단하게 보면 가족 주머니에 긴 대롱을 꽂아놓은 것과 같다. 그 대롱의 처음은 입이고 끝은 항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소화관이라고 부르며 결국 입과 같은 음식이 통과하는 동안 영양물질을 얻어서 가족속의 뼈와 살을 영양하고, 그것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므로 들어간 음식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적체가 되고 다음것이 잘 들어갈 수 없다. 또한 관의 벽에 불순물이 축적되면 관을 통한 영양흡수가 원활치 못하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한 장내 독소가 신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배변이 막히면 복부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려며 멍치 밀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움을 수반할 수 있으며,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은 구취가 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가슴에 번조감을 느끼게 된다. 변비가 있으면 피부병이 생기기 쉬운데 대변을 소통시킨 후 고질적인 피부질환이나 여드름이 소실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변비는 월경에 영향을 미치고 월경은 대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상호 작용을 하는 데 대변이 소통되면 월경이 골

라진다. 간과하기 쉬운 것은 대변이 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오래된 변비는 노인성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주로 굳고 동글동글한 변을 본다). 정신분열증과 같은 경우도, 발광을 하는 환자들은 대변을 소통시켜야 실증상태가 해소된다. 중풍환자의 경우 뇌의 손상에 의하여 자율신경의 조절이 문란해지면 장마비가 생겨서 대변을 못보게 되는데 적절한 처방이 구사되면 대변이 풀리면서 내장의 상태가 조절이 되고 그에 따라 뇌의 상태에 따른 제반 증상도 개선이 된다. (감남하나한방병원 · 하나의원 원장 김철호)

Advertisement for Samsung construction projects. It features images of the Petronas Towers, a highway interchange, a power plant, and a large building under construction. Text includes '건설한국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We will be the great power of construction Korea) and '삼성물산 No.1 인터넷전소' (Samsung Real Estate No.1 Internet Sales Office). Logos for Samsung and Samsung Real Estate are also present.

### 대장경에 나타난 여성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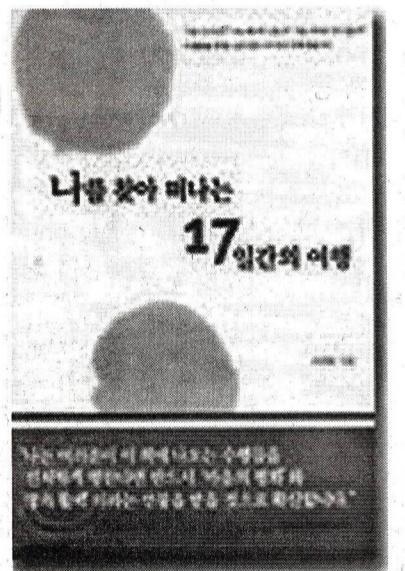
참으로 오랜만에 여성불교에 관한 연구서가 나왔다. <대장경에 나타난 여성불교> 책 제목에서 보듯 여주들이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인 경전을 근거로 여성불교에 대한 연구서이다.

불교여성개발원 창립1주년을 맞이하여 펴낸 <대장경에 나타난 여성불교>에서는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에 나타난 여성과 여성불자, 여성의 출가와 동기, 율장에서 나타난 여성 문제, 여성출가자의 삶과 깨달음 등 제 경전과 불교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저자 백도수는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후 독일유학과 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중앙승가대학교 불전국역원, 팔리대장경 번역 연구원 겸 강사, 불교여성개발원 연구 교육분과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저자는 이책에서 "여성불교의 출발을 경전의 올바른 이해라는 관점에 근거하였으며, 또 여성불교를 연구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나 편견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의해 설해진 여성에 관한 문제를 그 시대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고 했다.

###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존재에 대한 이러한 물음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우리 곁을 맴도는 화두들이다. 속도 지상주의로 치달으며 순간 소외를 부추기는 최근의 흐름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이 때문에 최근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의

문을 서로 나누고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는 명상 수행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여름 휴가철, 복잡한 피서지를 피해 심신을 가다듬는 '영혼의 바캉스'를 당시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고 치자. "아무개입니다"라고 이름을 댔더니 "그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을 쓰면 당신이 아닙니까?"로 되묻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가슴 답답하게 만드는 물음이다.

신간 『나를 찾아 떠나는 17일간의 여행』은 인도식 참선에서부터, 불교식 수행과 기독교식 묵상까지 교파를 초월한 '자아 탐색' 방식을 담은 책. 현직 기자인 저자가 신문에 연재한 '나를 찾는 사람들' 중 17개를 추린 글 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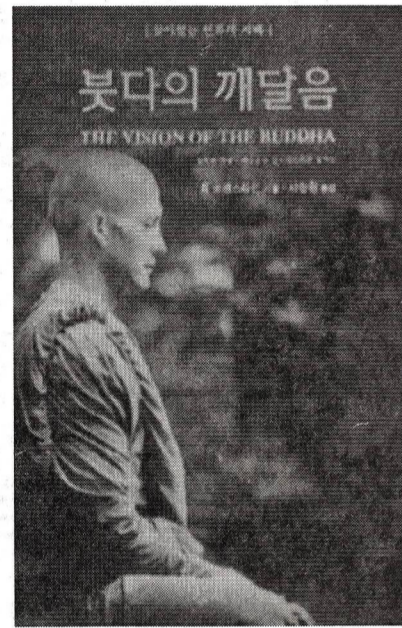
### 양초보 불교박사 되다

불교신문과 방송 또는 절에서 쓰는 일상적인 말이나 궁극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다.

불교상식에 관한 책은 지금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책처럼 꼭 알아야만 되는 항목을 소상히 적은 책은 드물 것이다.

이 책은 경전의 종류와 내용 극락전 관음전 등 사찰 건물의 명칭과 의미, 불보살의 명칭 및 내용, 불교 불교기 한국불교종파, 종정 원주 회주님등 스님의 직책등 의식 사찰 종단등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붓다의 깨달음



서양 학자의 눈에 보이는 불교는...어떻게 했을까? 이 책은 원색 화보로 불교의 예술. 공예. 건축의 장려한 모습과 함께 불교의식과 수행을 촬영한 사진들을 포함하여 보는 불교를 지향하고 있다.

즉 위대한 종교 불교의 역사, 영적전통, 전설, 가르침, 철학등을 생생한 원색화보와 함께 쉽게 설명한 책이다.

부처님의 초기시절과 깨달음에서 죽음까지의 여정 그리고 불교의 인도·남방권·중국·티베트·일본·서구로의 전래등을 조망하였다.

또한 불교사상과 수행방식을 분석하고 아울러 오늘날 서양에서 정신적 어휘로 쓰이게 된 명상·업·깨달음 등의 용어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불교 전문용어 해설 및 불교관련 단체목록과 불교성지 및 유적지등 다양한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 톰로윈스타인은 1972년부터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해 스리랑카와 워싱턴 대학에서 팔리어와 산스크리트를 수학하였다.

**월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코** -반야심경편 제5화- 글.그림/정수일

꽃사세요 반야꽃집

찾! 예쁘다.

그럼 한송이 사갈까?

네, 저는 불자예요. 그래서 간판이름도 "반야꽃집"이잖아요?

이그.. 웬 착각? 으잉? 합장을.. 그렇다면?

좋아요, 간판이름도 "반야"니까 "반야심경"의 "심경"의 뜻을 아시면 그냥 한송이씩을 드릴게요.

음! 하필..

그래도 공짜로 줄건 아니면서..

거, 왜 있잖아요. 노는 입에 염불 외운다고 "심심할때 경을 읽는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하하하~! 그까짓걸 문제라고 내시나.

아이고~ 옆구리아.

"심경"의 심(心)자는 마음, 문자로서 마음, 중심으로 풀이되며 "수많은 경전 가운데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경"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반야심경"이 세상최고의 경전이네?

호호.. 그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셋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다 같은 음식이지만 내 입속에 든 음식이 내몸의 영양분이 될 가장 중요한 음식이잖아요.

오물 오물..

하긴...저 녀석이 먹는 음식이 내 몸의 양분이 될리는 없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실과 근기에 맞는 경전이 되겠군.

앗! 대성사님.

하하! 정말 훌륭한 비유였습니다. 꽃집보살님.

모든 경전은 결국 다 부처님의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은 경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각 종파의 소의경전과 자신의 근기에 맞는 경으로 공부하면 된답니다.

나는 항상 경을 지니고 있는데..

봐요, 다이어트를 위하여 숫자를 새겨는 이 허리끈은 항상 자로 쓸 수가 있더군요.

감시다. 비싼 살방망이...

호호.. 꽃집 주인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경(經)이란 원래 범어 수트라(sutra)를 한역 한것으로 "자"로 사용하는근, 짧은 교훈, 교리의 뜻이었고 한자 경(經)은 날실, "불변의 진리"라는 뜻이니 경전이란 곧 "성인(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적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정수일:octagonp@hanmir.com

### 새마을운동 캠페인

# 공동체 의식이 절실합니다



- 지도층, 중산층이 술선수범하고 자신보다 남을 생각할 줄 아는 부지런하고 검소한 <일본인>
- 소비의 천국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내면에는 다음세대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는 <미국인>
- 투기를 할 줄 모르며 옷가지 등의 쓰던 물건을 이웃에게 즐겨 선물하는 <독일인>
- 모든 물건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사용하며 재활용습관이 몸에 밴 <프랑스인>
- 바겐세일때를 기다려 그것도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영국인>
- 집에만 붙어있는 참새 라는 말이 있듯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식을 안하는 <네덜란드인>
- 월급 1/4을 저축하며 기업이 살찌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싱가포르인>

이러한 선진국의 국민의식에 비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나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공동체의식이 절실합니다

# 종단협의회 신년하례 법회

## 마음속 탐욕 버리고 정진의 한해가 되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스님)는 16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총지종 해암 통리원장을 비롯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6개 불교종단대표들과 불교신행, 시민단체 대표, 정관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법회에서 조계종 정대총무원장이 법어를, 태고종 운산총무원장과 천태종 언덕총무원장이 기원사를 했으며,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은 발원문을 낭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장 자하스님의 개회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법어, 기원사, 축사, 발원문, 사홍서원으로 진행된 이날 신년하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법어를 통해 "올 한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

선출하는 한해인 만큼 지난 세기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화합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갈 올바른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정대스님은 "최근 연이어 터져나오는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부정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며 "올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망한 탐욕을 허공 밖에 버리고 청정함 본래의 마음자리로 돌아가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이 깨우쳐 주신 만유불성의 진리와 원효대사의 화염으로 대립에서 화해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조화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불교계의 원력과 덕업을 국운옹성의 힘으로 모아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 정지권 및 신행단체등 많은 주요 인사들 300

여명이 함께하였다.

### 어른과 함께 겨울방학을 역삼재가노인복지관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구슬담

지난 1월7일부터 25일까지 역삼재가노인복지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이해하기〉란 프로그램으

로 진행된 자원봉사활동에 중고생 25명이 참여하여 뜻깊은 방학을 보내고 있다.

기관오리엔테이션과 자원봉사 교육 그리고 어르신 이해를 위한 마인드 팸핑을 실시하였으며, 식사배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은 정보지제작 등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김지현(청담고)학생은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정,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어른공경의 정신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이번 자원봉사 활동으로 어른공경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배웠다"며 "이번 활동으로 공동체적 삶과 건강한 인성형성 어른공경의 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 종단협 2002년 월드컵성공개최 위한 계몽활동

#### 문화시민 에티켓 계몽스티커 철도청 열차 부착



한국 불교종단협의 회는 2002년 한 일 월드컵 공동개최 를 기념하

계몽스티커는 "이 자리는 노약자 보호석이예요!", "젊은이 꼭 여기 앉아야겠소?", "이 자리가 그렇게 탐나우?", "우리는 노약자보호석 지킴이 결사대" 등 원형 컬러스티커 8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시민 에티켓 계몽스티커"는 1월중순에 시작하여 월드컵축구대회 폐막시까지 수도권 전동열차 내 식 계도 정착을 위해 '문화시민 에티켓 계몽스티커'를 제작하여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에 부착하였다.

계몽스티커 부착노선은 구로, 성북, 시흥, 분당 등 총 1514량의 전동열차이며, 열차 1량당 4곳의 장애인 및 노약자 보호석에 부착되어 총 6,056장의 스티커가 부착되었으며

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지원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진문화의 식 계도 정착을 위해 '문화시민 에티켓 계몽스티커'를 제작하여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에 부착하였다.

계몽스티커 부착노선은 구로, 성북, 시흥, 분당 등 총 1514량의 전동열차이며, 열차 1량당 4곳의 장애인 및 노약자 보호석에 부착되어 총 6,056장의 스티커가 부착되었으며

# 청암스승님 열반1주기 추모 독경집 발행

## 음성으로 전하는 밀법의 지혜



청암종사 열반 1주기 추모불사를 기해 재제분들이 손수 청암종사 독경집을 발행했다.

이번 독경집에 모두 10편의 독경이 실려, 청암종사의 청아하고 구수한 목소리와 밀교진언의 경이 조화를 이루 듣는이들에게 저절로 신심을 일으키게 한다.

지혜와 방편, 법신 화신, 참회, 선행, 네가지 큰 은혜, 심인 물과 심의 이원, 법시와 보시, 부모은혜 깊은길, 마음과 병, 반야심경 등 총 10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청암종사가 살아생전 울곧게 퍼신 마음 찾는 법,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한 사상이 독경집에 녹아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 다른 한편으로 스승님으로 존경해오던 재제분들이 살아생전 청암종사가 즐겨 외우시던 독경을 편집하고 자료 화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 인도JTS 설성봉거사님 총격 피살

## 지난 10일 무장괴한들로부터 총격, 인도정부. 경찰 수사나서



(46.부산)가 지난 1월 10일 오후 6시

한국 JTS가 운영하는 인도 동게스 외리 지역의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설성봉거사님이 15분경(한국시간 저녁 9시 45분) 때 강도들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지에서 활동중인 한국 JTS의 김동훈씨에 따르면 범인 잡혔지만, 대강도 중에서 한명만이 잡힌 상태이며 직접 총격을 가한 사람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인도 정부와 경찰에서 정식 수사 협조를 요청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설씨의 장례식은 지난 12일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가야시장을 비롯해 보드가야에서 수행하던 각국 스님 50여명과 마을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식 대비식으로 치러졌다.

또한 한국에서도 부산 정보법당에서 대비식이 거행됐으며 소식을 들은 정보화원들은 영가천도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인도 현지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설씨를 기리는 부도탑이 세워질 전망이다.

### 두레란 '혼자'가 아닌 '더불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 서울 남녘에서 오는 봄바람, 청계산을 찾아서  
날 짜: 2002. 2. 3(일) 09:00  
출 발: 양재역내 8번 출구 매표소 앞(지하철 3호선)  
답사지: 천리산 봉수대·망경대·혈음재·미륵당과 도당리 등  
답사비: 1만3천원(점심 각자 매식·교통비·강사료 포함, 학생 1만원)  
준비물: 겨울 산행 준비·간식 준비
- 신비의 동굴을 찾아서  
날 짜: 2002. 2. 17(일) 08:00  
출 발: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바깥 50미터 지점)  
답사지: 노동굴의 박쥐와 동굴 생물 관찰 그리고 고수동굴  
답사비: 3만5천원(점심·교통비·입장료·보험료·강사료 포함, 학생 3만3천원)  
참 조: 손전등·장갑·모자·필
- 기독교·운동화, 등산화 착용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와 견학의 유적을 찾아서  
날 짜: 2002. 2. 25(월) 08:00 ~ 26(화) 19:00 (1박2일)  
출 발: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 지점)  
답사지: 문화답사(금산사·견훤묘·개대사)  
민속놀이(쥐불놀이·달집태우기·장승제·웃놀이 등)  
답사비: 8만5천원(1박4식·교통비·대보름체합비·강사료·보험료 포함,  
학생 8만2천원, 비회원 8만8천원, 회원가족 3인 가족 이상 학생요금)  
참 조: 손전등·목장갑·쥐불놀이용 강통  
나를 찾아 떠나는 남도기행  
날 짜: 2002. 3. 1(금, 삼일절)
- 08:00~3:30(일)19:00(2박 3일)  
출 발: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 지점)  
답사지: 보길도 동백꽃·미항사 저널 노을과 명상수련·반남고분의 불가사의  
대문사의 발우공양·칠랑용기와 고려청자 체험·운주사의 역사산책 등  
답사비: 13만7천원(2박7식·교통비·승선비·강사료·보험료 포함, 학생 13만2천원·비회원 14만원·회원가족 3인 이상 학생요금)  
준비물: 손전등·세면도구  
봄이 오는 걸음 조금은 느리게 살고자 합니다. 바닷소리 들으며 차 한잔 나누는 여유를 갖고 싶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는 길목, 남도에서 잠시 놓치고 싶었던 나의 참모습을 챙겨보려 합니다.  
새롭게 마련한 **나를 찾아 떠나는 기행**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부처님과 제자들의 원음(原音)대화 13년 인고 끝에 마침내 세상속으로

부처님의 수정처럼 맑고 논리적이고 인격적인 말씀이 마침내 우리 곁에 다가왔다.

지난 1월25일 조계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전재성(한국파리리성전협회 대표) 빠알리어 대장경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 주한 스리랑카공사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여 〈쌍웃다니까야〉 우리말 11권 완역 봉정식을 거행하였다.

성태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봉정식에서 정대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쌍웃다니까야)의 완역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명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경사로 기록될 것이며, 불교계도 빠알리어 지속적으로 우리말로 번역되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많은 불자들에게 청정한 감로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축사를 하였다.

전재성교수는 완간사를 통해 "쌍웃다니까야는 빠알리어 대장경 가운데 가장 고층(高層)에 속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부처님과 제자들의 생생한 대화를 기록한 2889개의 짧막한 경전들로 이루어져 학문적으로 가장 인용빈도가 높은 경전이다"고 말했다.

또한 번역된 쌍웃다니까야의 특징으로 △ 국내최초의 우리말 완역 △ 세계최초로 빠알리어대장경 쌍웃다니까야의 싼라품(화장품) 완전 복원 △ 현대의 우리말 일상용어 사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는 △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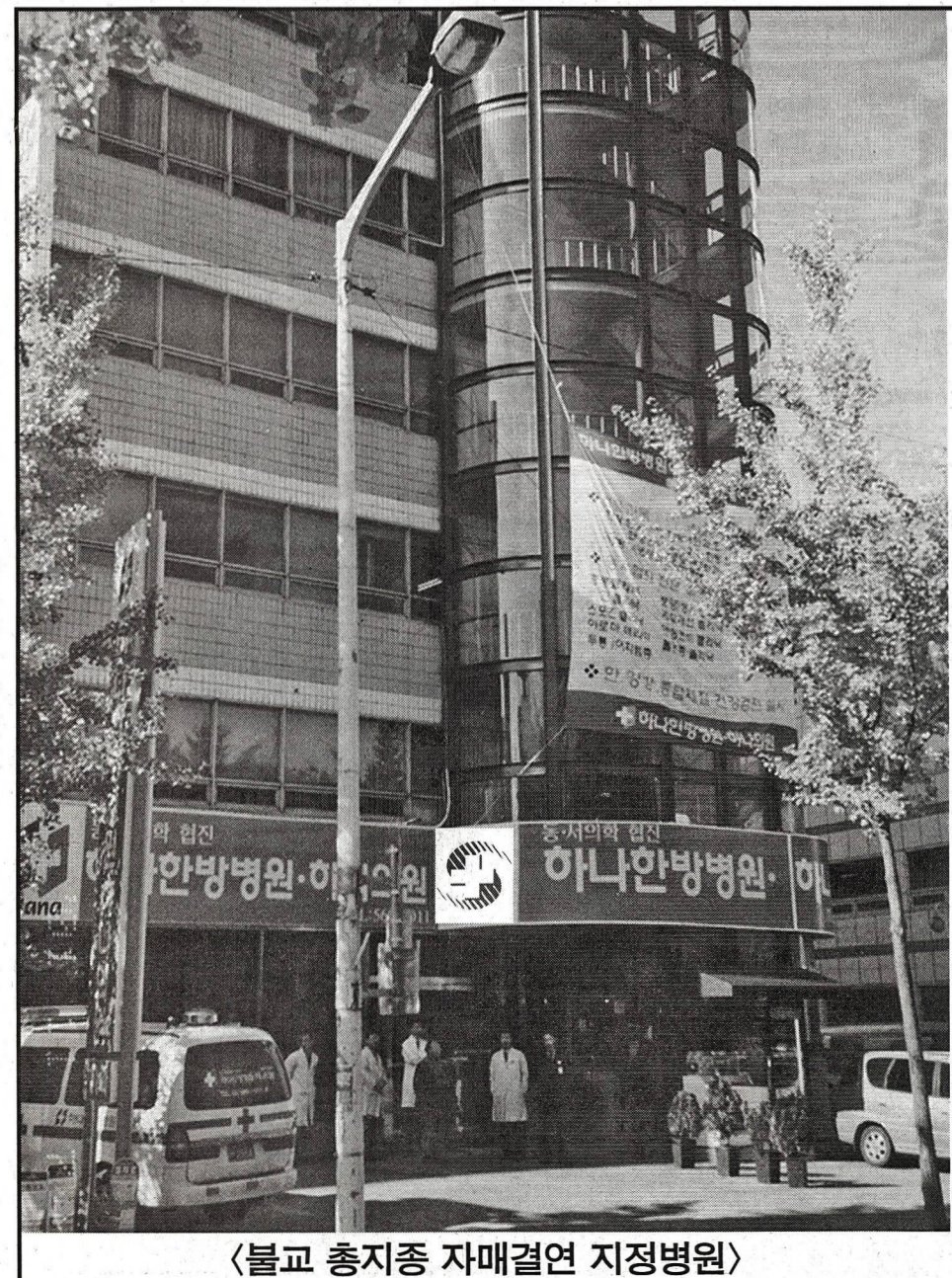


한 번역의 객관성을 담보했으며 △ 쌍웃다니까야 전 11권 56쌍웃다, 2889경에는 6184개의 주석을 달았고 △ 기종의 경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경전이 있는 경우 경전에 제목을 주를 표기하였다

한국빠알리어전협회 회장인 전재성 박사가 13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쌍웃다'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완역해 11권의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쌍웃다'는 '빠알리어대장경'의 율·경·논 삼장(三藏) 중 경장의 하나인 '주제에 따라 함께 묶은 모음'이라는 뜻이며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잡아합점으로 불린다.

불교계의 척박한 역경사업의 실정에서 13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속에서 탄생한 쌍웃다니까야는 한국 불교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수 없다.



## 하나한방 병원

대체의학점목 협진

## 하나의원

- 한방 제1과: 병원장  
중풍,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핫병
- 한방 제2과  
남성, 중풍, 수협생, 성장, 당뇨, 알러지, 간기능, 남·여 불임
-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협생, 부인병, 갱년기, 알러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 한방 제5과/침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 가정의학과 1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 가정의학과 2과  
갱년기 호르몬, 알러지, 비염, 소아감기, 종합검진
- 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 ◎ 한방물리요법실
- ◎ 임상병리실

- ◎ 스포츠의학실
- ◎ 방사선실
- ◎ 물리치료실

◎ 한·양방 건강검진센터 가동 중!!  
◎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한 야간진료 실시 중!!  
(비만, 성장, 수협생 클리닉)

동·도의학 협진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 (02)569-1011~4  
FAX: (02)563-5577

교통편

- 버스①: 33, 212
- 버스②: 일반/21, 63-1, 65, 69, 33, 5, 6-2, 555-2, 571-1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하차 ⑧번 출구

〈불교 총지종 자매결연 지정병원〉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 화합과 자비로 천년만년 육합의 범등 밝힐 지인사

### 노보살과 젊은교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인연짓는 곳

1년전 청암종사 열반을 맞아 지인사를 찾고 참으로 오랜만에 가는 길이다.

길눈이 어두워 지인사를 잘 찾아갈런지 하는 마음은 기우였을 뿐, 마치 자주 와본 길처럼 헤매지 않고 지인사에 들렸다.

연등원 전수님은 오전 불공중이어서 법좌에 조용히 삼매에 들었으며 그 앞에는 송옥선 지인사 신정회 회장보살이 진언에 한참이다.

조용히 음미반메춤 육자진언 본존앞에 합장례를 하고 부처님께 서터를 누른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렌즈에 담아 불러는 욕심이 과했는지 연등원 전수님의 삼매의 침묵이 깨지고 온화한 미소로서 반겨주었다.

#### 청정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인연과 범문은 스승의 길로 인도하고 진언과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30여년이 훌쩍 지났다. 30여년간 오직 "분별심을 없애고 내 마음 반듯하게, 청정하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일체를 대하면 모두가 부처이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다"는 원칙을 가지고 수행정진을 해왔다 한다.

그리고 서서히 연등원 전수님의 수행담과 인연의 이야기 끝나

고, 또 종종 초창기에 총지증이 시끄러워서 진언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면서 1달여 동안 사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불공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딸이 1개월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거의 죽음에 임박했지. 그래 각자님과 내가 아이 살리는 셈치고 가서 진언불공을 하지고 마음을 먹고 불공을 하는데 그날로 딸의 아픔이 사라졌어요.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처님의 범문이 이렇게 오드라구요"하며 부처님의 범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부처님의 범문은 당체범문으로써 우리 주위에서 항상 가르켜 주고 예시하여 주는데 우리 중생들이 이런 범문과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한다.

#### 스승의 참모습은 무소유와 떠날때를 아는것

"처음 스승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느낌과 죽비를 잡으면서 항상 마음에 등불로 삼는 진리는 무엇인지요?" 하는 질문에 미소 가득한 온화한 얼굴에 세월의 만상이 교차하는 듯이 말씀을 이어 나간다. "90년 서울 상봉동 정심사 주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주교 발령도 특이하게 했어요. 기로원에 계신 대자행 스승님이 부산에서 올라오면서 나를 스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하셨나 봅니다. 그러다가 대자행 스승님이 퇴임을 하면서 정심사를 청소하고 훌쩍 떠나면서 나에게 오늘 저녁부터 정심사를 지켜라는 명령에 스승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가족하다 싶게 죽비를 잡게 했어요. 울며 겨자 먹는식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죽비를 잡았고 범문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대자행 스승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스승은 저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스승의 상을 삼았다 한다" 그분의 훌훌 털고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모습은 가슴에 남았다. 지금의 스승상도 대자행 스승처럼 욕심을 버리고 떠날 때를 알고, 무소유의 정신은 스승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승은 무엇보다도 욕심에서 벗어나야 사탄 마음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평범한 부처님의 진리가 담



▲맑은 하늘과 고풍스러운 지방 그리고 웅두는 지인사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

**내 마음이 반듯하고 청정하면 일체만물이 모든 부처이고 부처를 부처로 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사라진다**

풀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진다. 마치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 누워 할머니의 양상한 손으로 어린 나의 배를 쓰다듬으며 옛날이야기 해주시는 것처럼 푸근한 사랑방이 생각이 난다.

처음 인연은 "어머니가 현교절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 절에 대한 걸림은 없었지요. 항상 부처님과 같이 하고 부처님의 법을 들으며 스님들을 잘 따랐지요. 후에 각자님을 만나서 제도가 되었지요. 다른 가정은 보통 여자가 각자님을 교화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서 각자님이 밀교와 인연을 먼저 맺고 나를 제도시켰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간다.

"어머니가 시집갈 때 혼수품으로 검은 저고리를 해주신거예요. 어머니 말씀에 늙으신 시부모가 계시니 혹시 해서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총지종의 범의를 입게된 인연을 만들어 주었다. 중간중간에 마장도 오고 그랬지요. 부처님 법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처음 밀교와 인연을 맺은 초창기에 불공하는 것이 힘들어서 거지로 불공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독이 들어 큰 낭패를 보았

고있는 바다와 같은 큰 뜻은 중생의 잣대로 썰 수 없다. 지인사는 다른 사원과 달리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젊은 교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연등원 전수님과 신정회 회장(송옥선) 부회장(홍순영) 총무(이경봉)등 간부님들과 교도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일선에서 노력한 덕분이다. 나이 50만 넘어도 노보살축에 깬다는 우수개 소리가 예스럽게 들리지 않는다. 문제 해결 방법도 서로 화합하고 교도들의 합의하에 결정이 나면 모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은 마치 산중공의를 모이는 승가 공동체의 모습속에 지인사의 저력과 힘을 느낄 수 있다.

#### 청암 종사님과 일성혜 전수님의 숨결이 곳곳에

1년 전이다. 새해 불공중에 일어난 범문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새해 불공은 1년 불공중 가장 중요한 불공이어서 교도들 모두가 불공정진중인데 갑자기 천정에서 바위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다.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그리고 며칠뒤



▲연등원 전수님과 함께 지인사를 이끌고 있는 신정회 간부님들이들 이 지인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인사 전경. 젊은사원 처럼 사원의 모습도 생기 발랄하다.

**깨달음과 미혹은 따로 없으며 삶과 죽음도 다르지 않고 오직 분별심과 집착이 이러한 것들을 만든다. 모든 생각도 근심도 걸림 없이 닦아 자유자재한 참마음을 찾아야**

청암님이 열반 하셨다. 부처님의 범문이 총지종단의 큰 별이 떨어진다라는 모습을 교도들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아직까지 지인사에는 청암님과 일성혜전수님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 있다. 법당 창문가에 나란히 놓여 있는 난초와 화분의 정갈함은 청암스승님의 살아생전의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하다. 회장보살님은 "청암스승님은 불공하시다 밖에 나가서 사원앞을 돌고 뛰고, 또 불공하시고 조금 있다가 화장실 청소며, 전기공사, 문물공사등 정말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정갈히 하시려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하신다.

연등원 전수님은 "지인사가 발령나고 바로 큰일을 당해 참으로 난감하고 힘들었으나 교도님들의 도움과 일성혜 전수님의 보살핌과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벗어나 지인사가 점점 밝고 내달히 쬐어지는 것은 선배스승님과 교도들의 공덕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

연등원 전수님은 "지인사는 마지막 우리 모두가 "허튼짓 말고, 분별심 펼쳐 '나'란 놈 찾아라"라는 문구를 내려 주셨다.

#### 생기가 넘친 젊은사원

신정회 회장님과 더불어 간부님들이 점심공양 준비에 한창이다. 모두 보살의 마음처럼 밝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인사와 전수님 자랑에 한창이다. "지인사는 인제 젊은 보살과 각자님들이 많이 와서 생기가 넘치고 사원에 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어" 회장보살의 이야기다.

옆에있던 총무 보살은 "다 전수님이 잘하시니까 교도들이 들어오는거야"하시며 연등원 전수님 자랑을 시작한다.

"우리 스승님은 너무나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심사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불평불만 한번 안내시고는 수행정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스승님이 이런 부분이 교도들을 감

복시키고 따르게 만든다"며 자랑과 전수님의 수행에 대한 이야기 하신다.

전수님은 속스러운 듯 "다 교도들이 도와주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를 던진다.

이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스승은 수행자는 오직 수행에 전념해야지 다른곳에 특히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개인적인 탐심을 내면 스승자격이 없어요. 무소유의 정신이 강조되어야 해요. 그런데 일부분에서 정당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에 얼굴을 들 수 없어요" 이야기를 이어간다.

연등원 전수님은 종조 법설집에 스승의 사명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수행을 한다.

가방에서 조그마한 수첩을 꺼내 보여준다. '스승은 세간고락에 초연하고 자기의 인생관을 확립하여 그 지표로서 생활하는데 스승의 인격이 완성된다. 따라서 이해의 영역에도 굴복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지조있고 정의에 투철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적은 문구를 보여준다. 그러면서 특히 스승이 잘해야 교도들이 믿고 따르는데 말씀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연등원 전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허튼짓 말고, 분별심 펼쳐 '나'란 놈 찾아라"라는 문구를 내려 주셨다.

옆에서는 전기 압력 밥솥에서 하얀 김을 뿜어내고, 해물탕의 구수한 냄새가 늦은 점심공양에 식욕을 건드린다. '원님덕분에 나팔뚝'은 속담을 던지며, 함께 점심공양을 했다.

푸근한 사랑방의 온기를 가슴가득 담고 서울로 돌아왔다.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 2동 578-1 지인사  
·전화 : 032)528-2742



▲연등원 전수님과 함께 지인사를 이끌고 있는 신정회 간부님들이들 이 지인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